

25일 창립식 갖는 혜천 영광군항우장학재단 이형만 이사장

“고향 학생들에 꿈과 희망 심어 주고 싶어”

2억700만원 쾌적 장학재단 설립
창립식서 10명에 800만원 전달

“뜻이치게 가난한 어린시절, 돈을 벌면 꼭 나보다 힘들 사람들에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영광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희망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이형만(75·금오문수 회장) (재)혜천 영광군항우 장학재단 이사장은 오는 25일 오후 6시 광주시 북구 계림동 혜천빌딩 7층에서 항우장학회 현판식 및 창립식을 갖기 앞서 이같이 밝혔다.

영광군항우장학재단은 영광 출신으로 성실하고 애환심이 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 이사장이 2억700만원을 쾌척해 만들어진 장학재단은 영광군 군민의 날인 지난 5일 학생 11명에게 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창립식에도 10명에게 800만원의 장학금을 줄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나를 길러주고 품어준 고향을 위해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뿌듯한 일”이라며 “보다 많은 향우들을 모아 튼튼한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읍 남철리에서 자란 이 이사장은 어릴 적 가



나한 집안 사정 탓에 끼니를 거르는 일은 물론 학업에도 열중할 수 없었다. 이 때의 기억은 사업을 시작해 자수성가할 때까지 그를 일으켜 세워준 원동력

이 됐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남’과 더불어 사는 삶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더욱 확고히 가졌다.

55년 전 광주고속에 입사해 발권 업무부터 시작한 이 이사장은 20여년간 회사에 몸 담았다. 특히 승객들이 낸 표 값을 모아 관리하는 감독직을 수행할 때는 비리에 눈감아주지 않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 철저히 부정을 막았다. 이 때문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일부 직원들로부터 테러(?)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당시엔 부정을 두 달만 눈감아주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시기였다.

광주고속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회사를 나온 후 금오문수를 만들어 지금까지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 때부터 이 이사장의 본격적인 고향 사랑이 시작됐다. 향우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영광군항우회 활동은 물론 민족통일광주시협의회 회장과 국제인권보호한국연맹 광주·전남지부 부위원장 역할도 맡는 등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나는 어릴 적 향우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고향의 힘을 전해주고 싶다”며 “백돌 한개 한개 쌓는다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일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만큼 노력하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 투발루가 물에 잠긴다면
내일은 당신들 차례가 될 것”

광주에 온 투발루 알라마핑가 목사 지구온난화 위험성 경고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국가 ‘투발루’는 현재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에 잠기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피해는 투발루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알라마핑가(45) 투발루 기독교 교회는 2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일곡동 남도음식 박물관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우리는 모두 투발루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알라마핑가 목사는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가 작은 섬나라인 투발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다.

인구 1만 2000명의 소국 투발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중지시키거나 되돌리지 않는다면 지구 표면에서 사라지게 될 취약한 많은 섬나라 가운데 하나다.

최근 투발루는 국토포기 선언을 통해 국민들은 뉴질랜드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투발루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다.

알라마핑가 목사는 “지금 투발루에는 사이클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대성 사이클론이 아



주 흔해졌다. 또 모든 해안이 침식되고 있으며 해안 지역 뿐만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도 산호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이 일어나 산호가 죽어가고 있다. 해수 온도 상승과 다양한 오염물질이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산이나 강이 없는 투발루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유일한 식수원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투발루의 급격한 기후 변화로 폭풍만 더 잦아진 것이 아니라 건기도 길어져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물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땅을 파서 지하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지하수가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라마핑가 목사는 “투발루 같은 나라를 너무 늦기 전에 구하려고 세계의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억하라. 오늘 투발루가 물에 잠기면 내일 당신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함께 한다면 우리는 투발루도 구하고 이 세상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유선 ‘우리밀 알리기’ 홍보대사 위촉

배우 유선이 ‘우리밀 알리기’ 홍보대사에 위촉된다.

22일 소속사 예당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유선은 2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전라남도 주최 ‘국산 밀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에서 ‘우리밀 알리기’ 홍보대사가 된다.

유선은 “값싼 중국산 곡물의 수입 탓에 외면당하는 우리 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은 현재 KBS 2TV 주말극 ‘술악국집 아들들’에서 ‘복실이’ 역으로 인기를 끌며, 최근 강우석 감독의 신작 ‘이끼’에 캐스팅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화배우 정준호 통일부 홍보대사에

통일부는 22일 영화배우 정준호(사진 왼쪽)씨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준호씨가 남북관계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다 그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통일부 업무가 지향하는 바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대현 군, 장한성 군, 손대범 군, 김윤희 양, 박기종 군, 이단비 양

‘광주 청소년 대상’ 아버지에 간 이식 김대현군

효행·선행 등 6개 부문 수상자 선정

광주시는 21일 ‘2009 청소년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 1명과 효행, 선행, 민학, 장애극복, 예·체능 부문의 우수청소년 각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떼어 준 김대현(보문고 3년)군이 선정됐다.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교 3학년 학생임에도 이식수술에 나선 김군은 현재 통일 치료를 받으며 수능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김군은 교내 수학경시대회 우수상, 과학경시대회 최우수상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광주 청소년 대상’ 취지에도 부합,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효행부문 역시 지난해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하는 등 효도가 극진하고 평소에도 봉사활동

이른 공경해 모범을 보인 장한성(고려고 3년)군이, 선행부문은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손대범(석산고 2년)군이 선정됐다.

또 민학부문에는 14년째 투병중인 모친을 모시며 가사일을 돌보면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김윤희(효광중 3년)양이, 장애극복부문은 태어날 때부터 자폐성 장애인이지만 시집을 2차례 출간하고 시화전을 여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박기종(광주대 4년)군이 뽑혔다.

예·체능부문은 신체적 결함과 부상을 극복하고 불굴의 의지와 투지로 배드민턴 선수로 활약하며 전국 대회에서 2위에 오른 이단비(산원초고 6년)양이 수상했다.

광주시는 오는 30일 수상자와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주건설, 광산구에 사랑의 쌀 400포대 전달

대주건설 임직원은 22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청을 방문해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400포대를 전달했다.

대주건설은 수년간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및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저소득층에게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주건설은 지난 1월 정부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고도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일과를 끝까지 준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7월 말 용인공제지구와 수완6단지 현장을 준공했으며 순천용당동 1천500여세대 현장도 10월 준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주건설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인 사내 모금활동도 지속, 불우 이웃돕기를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정후채·박성희씨 장남 육석군 후인비라·관티케씨 차녀 후인티 디엠 까우양=26일(토) 오후 1시 광주 상록대딩홀 4층(장미홀)
▲강희채·손정애씨 막내 성주군 김양식(쾌남)·김점순씨 차녀 유경양=27일(일) 오후 1시 웨딩의 전당 3층 노블레스홀.

동창·동문회

▲광주고등학교 31회 동창회(회장 문재평)=23일(수) 오후 7시 상무지구 진미정국장. 062-655-1910.
▲조대부고 30회 동창회(회장 조향훈)=25일(금) 오후 7시 지석한우촌(동림병원 맞은편) 062-513-5006, 011-601-6275.
▲철철회(국군광주 병원 퇴직 군

무원 모임·회장 김창호) 모임=25일(금) 오후 6시30분 호남동 미송식당. 062-223-6322.

▲옥과초등학교 총동창회 임시총회(추진위원장 김계중)=10월2일(금) 오후 4시 옥과초교 대강당. 011-601-4090.
▲대촌중 제11회 동창회(회장 송운근) 추석 정기총회=10월2일(금) 오전 11시 모교운동장. 011-610-4706.

향우회

▲재광 순창향우회(회장 공병철) 2009년 추계유회=26일(토) 오전 8시 광주역 앞 버스출발, 부부동반으로 무주적상산. 010-3624-0030.
▲제88회 지산지역 한미당축구대회(지산체육회장 이춘범)=10월3~4일(개회식 3일 오전 9시30분) KT & G 광주제조창 운동장.

종친회

▲경주정씨 목포지구 종친회(회장 정학균) 9월 월례회=23일(수) 오후 6시30분 목포동초등학교 위 휴산후읍소. 061-274-7222.
▲진양(진주) 하세 광주회수회(회장 하대희) 월례회=26일(토) 오전 11시 제주삼다갈치(대인동 중앙신협사거리). 062-233-4747, 010-3607-3369.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혜천 재광 영광군 항우장학회(이사장 이형만) 창립식=25일(금) 오후 6시 북구 동림동 혜천빌

딩 7층 사무실. 강대의 사무국장 010-4192-5182.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모집

▲수공예 문화센터 회원 모집=리본공예·비즈공예·한지공예·CA 방과후지도사 전문 자격증, 취미반, 창업반 모집(1대1지도), 비즈공예·리본공예는 무료수강. 수공예 협회서부지구지부(구 송원대학 정문) 062-367-1040, 010-7942-6597.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토요문화교실 ‘우리나루 바로알기’ 수강생 모

집=26일(토) 오전 10~12시 중의공원 일대에서 전통수묵과 야생화 현장체험 및 탐구학습, 접수소 마감 참가비 5천원. 062-521-9041.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모집=담양거주하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군민, 식품유품,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14회 광주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기간(10월~24일까지), 일시(11월19일~22일), 전남대학교 융복합문화관 4층 시청각실. 062-529-7576(www.gjhrff.com)
▲동구 전문봉사단 교육생 모집=동화구연·생활속의 침술·침·부황, 30일까지 교육 후 봉사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동구청 보건소건물 2층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독서치료사·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방과후아동지도사·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심리상담사·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시, 강사·시인·아동문학가·심리상담

지도사 김성구 박사, 문의 평생교육원(062-670-2167, 2168)

부음

▲공복택씨 별세 기용서씨 모친 상=발인 24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서순례씨 별세 백순기·춘옥·옥진·만자·옥희·윤희·영희씨 모친상 승철(인태고)씨 조모상=발인 23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홍이순씨 별세 이동영·동덕·동주·동영·동채·홍남·동례·명순씨 모친상=발인 23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이정숙씨 별세 이원회(사업)·정희(한양의원 원장)·성희(목사)·준희(이준외과 원장)·명희(사업)·복자씨 모친상 박영일씨 빙모상=발인 23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양현우씨 별세 형순·석순씨 부친상=발인 23일(수) 학동 금오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송철준씨 별세 명달(전국택시 공제조합 광주지부)·형근(현대마트)·명숙(미술학원)씨 부친상 장미희(동신고등학교)·이명신씨 시부상 박한상(전국택시공제조합 광주지부)씨 빙부상=발인 23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선 국민생활서비스 프리드 현대중합상조. 가맹문의 1566-4499